

환일인이여! 새로운 희망을 향해 정진하라!
- 제 73회 졸업을 기념하며 -



교정 위로 던져 올린 학사모가 같은 하늘로 날아오른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사진 속 장면들은 3년간 성실히 지나온 성장의 기록이며, 배움과 도전, 낯선 경험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 시간들은 추억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된다. 환일에서의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며, 쌓아 온 마음가짐과 관계들은 각자의 길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선배님들이 자신의 밝은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기를 응원한다.

학교신문편집반 일동

3년 동안의 추억들



2023년 입학식



2023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5년 스포츠축전



2024년 독서캠프



2024년 전국합창경연 대회 우승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 시121:5 -



1면-8면 주요내용 소개

1면 졸업을 축하합니다.

2면 졸업을 축하하며

3면 졸업 수상자 소감

4면 합격 시기

5면-7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3 수능 후 활동

8면 졸업식 특별상 수상자, 크리스마스 합창제, 성탄예배, 2월 일정



졸업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도전

교장 이정철



사랑하는 제73회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학부모님과 내의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일의 소중한 아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학업을 마친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모든 교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환일고등학교는 1947년 설립 이래 "경천·애국·애인"의 교훈 아래, 바른 품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년 동안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이 환일의 전통을 온전히 이어 왔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은 단지 지식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더 큰 세상을 향해 꿈을 꾸는 용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환일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는 기쁨도 있겠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배움, 그리고 환일에서 쌓아온 경험들은 분명히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를 마음 다해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던 환일의 이름처럼 밝고 환한 빛이 되어 주길 기도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3학년 학부모 대표 김지영



여러분은 지난 3년 동안 환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배우며 성장해 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도 있었고, 각자 삶에 대해 고민이 필요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모여 오늘이라는 결과에 이르렀고, 여러분의 노력은 유종지미를 거두며, 2026년 변화무쌍한 흐름이 예상되는 봄은 말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이 항상 즐겁고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환일고에서의 시간과 배움과 교우는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게 해 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늘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준 부모님이 버티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말이지만, Boys, be ambitious! 꿈을 크게 가지세요. 파고를 넘으며 전진하다 보면 어느순간 큰 꿈에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축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환일고에서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환일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교감 최원호



환일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 3월, 일상이 재자리를 찾아가고 학교에도 다시 활기가 더해 지던 때에 고등학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설렘과 긴장을 안고 시작했을 여러분의 마음을 떠올리면, 그 시간을 성실히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이 더욱 대견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등학교 3년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더욱 규칙적인 생활로 이룬 등급을 이어 갔으며, 때로는 봉학산에 올라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며, 반짝이는 별빛 아래에서 꿈과 진로를 차분히 떠올렸을 여러분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졸업을 맞아 우리 환일의 표어인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글귀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세우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결국 길이 열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자라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힘입니다. 많은 일을 도와주는 도구가 생기더라도, 마지막에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여러분의 성장과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친구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침에 애쓰신 선생님들,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서 늘 응원하고 기다려 주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고, 원하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단단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욱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2학년 학부모 대표 임지수



졸업을 축하합니다

환일인의 상징, 은행나무는 사계절마다 다른 빛깔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봄의 연초록 새싹은 희망찬 시작을, 여름의 짙푸른 잎은 열정의 성장을, 가을의 황금 열매는 성취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지난 3년간 학교 생활 속에서 묵묵히 내실을 다지며 자신만의 빛을 발해왔습니다. 평범한 매일의 노력이 쌓여 특별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험난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해온 여러분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시험의 긴장감, 과제의 열정,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췄으니 두려움 없이 도전하세요. 앞으로도 은행나무처럼 강인한 정신력으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며, 더욱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교실을 나서며

제 72대 학생회장 김주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72대 학생회장 김주한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 된다는 말이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오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교실에서 웃고, 고민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참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의 흥분,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로 웃던 쉬는 시간, 행사 준비로 늦게까지 남아 있던 날들까지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마음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아쉬움과 후회도 남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얻은 시간이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그리고 이 시간을 꽤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교실과 복도, 늘 같은 시간에 울리던 종소리를 떠나 처음 가보는 길을 걷게 되겠죠. 앞으로의 시간은 분명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동시에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것 같습니다. 선택의 순간도 많아지고, 그 결과를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날들도 오겠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내일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으니 각자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이 소중한 기억들이 언젠가 힘든 순간에 스스로를 믿게 해주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모두 진짜 수고 많았!

선배님들을 늘 응원합니다.

제 73대 학생회장 김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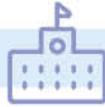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제73대 학생회장 김태양입니다.

우선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간 봉학산마루의 가파른 언덕만큼이나 험난했을 입시와 학업의 과정을 훌륭히 마친 선배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환일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공부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나누고 줄음과 싸우며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길을 찾아온 치열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주할 세상에서 때로 실패나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지금까지 환일에서 증명해오신 끈기라면 어떤 역경도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드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록 교문을 나서며 정든 교정을 떠나시지만, 저희 후배들은 이곳에서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전통을 소중히 이어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새로운 시작에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먼 훗날 다시 만날 때 저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후배로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졸업 수상자 소감

설립자상 수상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립자상을 받게 된 박재범입니다. 기쁜 마음을 뒤로 하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모든 선생님, 힘들 때 같이 있어준 친구들,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부모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것 같으면서도 뜻깊은 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함께한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입시생활을 재도전하거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준비를 하고있는 친구들,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후배 분들, 그리고 앞으로 환일고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 분들 모두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립자상을 수상하게 된 3학년 박준영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의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기쁘고 보람찬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함께해 준 친구들과 항상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제게 주어진 책임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학년 박준영

문화상 수상자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니 어느새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문을 들어섰던 날의 긴장과 설렘 속에서 시작한 학교생활은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친구들 덕분에 힘든 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겠지만, 이곳에서 쌓은 경험은 제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를 떠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책임감과 성실함을 잊지 않고 제 선택에 당당히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시간과 인연에 감사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3학년 윤우성

경천상 수상자



안녕하세요. 이번 환일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경천상을 수상하게 된 3학년 1반 김재하입니다. 입학식 전 스킵캠프에서 처음 친구들을 만난 것이 었고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난 것이 놀랍고, 돌아보니 즐거웠던 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환일고등학교에 와서 좋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께 좋은 영향을 받고 더 나은 계가 되어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담임선생님이셨던 최우식 선생님, 허성희 선생님, 그리고 힘들었던 3학년 때 저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윤종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꼭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심대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맙습니다. 환일고등학교에서의 3년은 제 인생의 자랑이자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이러한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학년 김재하

학교장상 수상자



안녕하세요, 올해 학교장상을 받게 된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졸업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떠오르는 일곱들이 많습니다. 먼저 제게 과분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학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간 같은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싶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덕분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3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3년동안 저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여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었으며, 도전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성취감을 느껴 보

았습니다. 동시에 어떤 과제 앞에서 게을렀으며,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였고, 주저하고 불안해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굴곡 속에서 흘러온 3년이었습니다만, 결국엔 졸업을 앞둔 열 아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들을 거쳤기에 현재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한 제 자신에게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후배님들도 환일고에서 열심히, 즐겁게, 혹은 힘들고 버겁더라도 온전하고 펍 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의 끝자락에 뜻깊은 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준 환일고등학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학년 김승원

중구 국회의원상 수상자



안녕하세요. 중구 국회의원을 받게 된 김동하입니다. 3년동안 환일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며 마지막에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환일고등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며 우정을 쌓아 나아가고 선생님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3년이라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추억과 경험을 아이들이 가져가기에 충분한 학교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1,2,3학년 모두 행복했던 1년들이었고 담임선생님이셨던 이병호 선생

님, 최우식 선생님, 김재근 선생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이 학교를 같이 다닌 제 친구들, 모두가 앞으로 밝으며 나아갈 사회를 잘 헤쳐나가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3년동안 머무른 학교에게,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3학년 김동하

마포구 국회의원상 수상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마포구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김규현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상을 받으며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우식 선생님, 박현아 선생님, 이링구 선생님, 그리고 다른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들 때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함께 달려온 친구들에게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3년전 환일고등학교에 전학왔던 당시에는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버티나 싶고 막막하기도 하였지만 훌륭한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이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었기에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며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을 수상하며 환일고를 졸업하지만 환일고를 다니며 얻은 모든 추억들은 영원히 졸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상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김규현

서울특별시의회상 수상자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받게 된 최원준입니다.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여러 행사, 활동에 참여하며 보낸 지난 3년간 환일에서의 여정이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가르치고 여러가지 도움을 주신 환일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 믿고 응원해 준 가족분들께, 또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이 상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과 앞으로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최원준

사립 중고등학교장상 수상자



이번 사립 중·고등학교장 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처럼 뜻깊은 상을 주신 사립 중·고등학교장 회장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생활 동안 늘 따뜻한 관심과 지도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사를 전합니다.

지난 고등학교 3년은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과 책임감을 함께 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수업과 학교 활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협력 속에서 배움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려움과 고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책임 있는 태도를 잃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가치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처럼 소중한 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립 중·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박찬영

학운위원장상 수상자



안녕하세요.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3학년 1반 임민우입니다. 졸업을 맞이하며 학운위원장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게는 과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감사한 상이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의 학교생활은 배움의 시간인 동시에 감사함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자 노력해 왔을 뿐인데, 그 과정을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큰 상으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생활 중 합창부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무대를 완성해 가는 경험은 제게 값진 기억이었습니다. 합창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또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이셨던 임경희 선생님, 김철우 선생님, 윤종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 밖에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지도로 이끌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덕분에 학교생활을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곁에서 함께해 준 친구들과 덕분에 평범한 하루하루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늘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배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받은 마음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학년 임민우



합격 수기

수시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배운 현실적인 전략

3학년 박재범



안녕하세요. 저는 KAIST,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수시로 합격하게 된 박재범입니다. 제 경험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시를 버리지 말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수생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이점은 고3이 상대하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정시는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인 수능 중심입니다. 불확실성 없이 표준점수(혹은 백분위)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투명하지만, 잔혹합니다. 저는 수능을 제외한 모든 모의고사에서 항상 극상위권이었고, 특정 과목 만점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능 때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시로 대학을 노리기는 어려우나, 그만큼 허방을 든든하게 지켜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시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원을 가고 수업을 듣는 시간이 도움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과목에 상관없이 어떠한 질문에 대해 오래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 실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실력 향상과 학습에 대한 효능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밤의 일이라는 점에서, 행운의 본질은 불행과도 비슷하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수능 생활을 견딜 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혹은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음을 알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2026년 연말에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세 좋게 나아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과정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3학년 김재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6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김재하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활동우수형(종합)으로 합격했으며,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교과로 합격했습니다. 하향곡선의 1절대 중후반의 내신임에도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생기부에 드러나는 깊은 탐구 활동과 학업 태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2학년의 탐구 활동 소스들을 3학년 때 활용하였으며, 그러면서 해당 과목의 역량을 탐구 과정과 행사 면에서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를 알고 나열하는 시시한 활동이 아닌,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주관과 새로운 관점이 들어간 주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로가 바뀌어도 이전 진로와 바뀐 진로의 연관점을 찾아 자연스럽게 동기를 드러내면 됩니다. 본인이 1, 2학년 생기부의 깊이가 조금 부족해도 3학년 때 충분히 만회 가능하니 끝까지 종합전형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부만 해야지 하는 압박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마음이 심란하고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학년도 우리가 해 온 과정의 연속일 뿐, 결국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살 때의 질 쉬며 꾸준함을 유지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꼭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입시 제도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결과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며, 절대로 여러분의 잠재력과 역량을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들어온 이상 최대한 시스템에 맞춰 노력해 보는 일련의 과정은 결과에 상관없이 나중에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없이 방향하더라도

3학년 김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6학년도 입시에서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어 합격 수기를 쓰게 된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날부터 대학 합격을 확인한 순간까지의 3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뚜렷한 진로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원하는 학과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는 고1 첫 시험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성적을 받게 된 데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단순히 "고등학교 첫 시험이니까 열심히 해봐야지"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한 번 열심히 해보시라"입니다.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아직 목표를 가지지 못한 분들은 경험 자체를, 혹은 정말 사소한 것을 목표로 삼아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싶고, 고등학교로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번 몰두해서 공부해 보시고, 거기서 얻은 느낌과 생각을 훑대 삼아 더 구체적인 목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3학년에 이르러서야 사회학과라는 목표가 생겼고, 여기에 더해 여태껏 받아보지 못한 성적인 1.00을 받고 싶다는 욕구를 기록해 삼아, 슬럼프가 자주 왔던 3학년 시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수험 생활은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공부를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그냥 적당히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그간 축적된 도전과 성공의 경험들이었고, 제가 가지게 된 목표였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시고,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 마지막에 웃으며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내신과 논술에 공을 들이세요 - 인문논술 전형으로 합격

3학년 이호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 내신 3.30으로 마무리하여 논술전형으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합격한 이호형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지런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내신, 논술, 수능이라는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수능에서는 국어 과목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하고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그쳤지만, 이를 통해 현역 수험생이 수능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N수생의 증가, 소위 '사람인' 현상, 난이도 조정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현역 학생일수록 내신과 논술 준비에 더욱 공을 들이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9월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이후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 이후에도 수능 준비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데, 친구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독심 있게 수능과 논술 공부에 집중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논술은 편견과 달리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글씨체와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이 요구하는 답안의 구조와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원한 학교들의 최근 3개년 논술 기출 문제와 모범 답안을 분석해, 각 대학이 선호하는 글의 형식과 분량, 서술 방식을 반복적으로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문제에 맞게 응용하여 답안을 작성한다면, 채점하는 교수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수험생활이라는 길고 긴 압축의 터널을 끝까지 지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학년 김하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6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김하준입니다. 제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신, 수능, 면접 순으로 조언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글이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신입니다. 내신은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주관이 불가피하게 개입됩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학교 수업 때 자습을 하고, 학원이나 인강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대 수업에 소홀히 듣는 건 무모한 선택이고, 좋은 인상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수능입니다. 내신이 충분하지 않아 정시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능 날, 여러분은 낯선 교실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곧 현역이 되어 수능을 처음으로 치게 될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수위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애매한 내신 때문에 고민하던 중,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영어·수학 합쳐 3개를 틀리고 정시에 대한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수능 성적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고, 국어의 난이도로 출제된 국어와 영어 영역 시험을 본 후에는 정말 짐 싸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면접이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데, 수능이 끝나고 놓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 두고 생기부를 다시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 사이트에서 전공 커리큘럼과 교수진의 연구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질문이 나온 경우에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답하셔도 됩니다.

입시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입시에 매몰되어 그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끝으로 고3 담임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믿어 주시고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학년 김주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 제78기로 합격하게 된 김주한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의 준비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입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로 구성되며 수능과 유사하지만 시간이 더 부족해 체감 난도가 높습니다. 저는 따로 사관학교 공부를 하기보다는 수능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중간중간 사관학교 기출을 풀며 대비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 가능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시험, 면접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신체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시험 당일 처음 검사받기보다는 미리 항공신체검사를 받아 자신의 조건이 기준에 맞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시험은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이루어지며, 점수 비중이 크고 면접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학기 중에는 꾸준히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겨울방학부터 계획적으로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면접에서는 지식 자체보다 '정말 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진정성을 봅니다. 지원 동기, 안보 이슈, 군인·국가관에 대한 질문이 많으니, 평소 국내에 안보 상황과 주요 이슈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학원이나 인강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취득 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접수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준비해 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1급을 취득하시길 권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입시는 쉽지 않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수를 기회로- 수리논술 전형으로 합격

3학년 최원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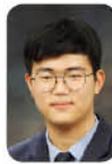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리논술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 합격하게 된 최원준입니다. 이 글이 입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들 하시는 말이지만, 우선 원만하면 정시보다는 수시를 끝까지 쟁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시로는 실질적으로 재수생들을 이기기 어렵고, 수능 날 여러 변수로 인해 평소만큼의 성적을 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버리고 정시만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를 위주로 준비한다고 해도 수능 시험 한 번 어떤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내신 성적도 최대한 높여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또한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자연계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논술 전형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로 많은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내신과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계열 논술은 출제 범위가 내신·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추가 준비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오면 학생이어서 원래는 정시를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수능에서는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았고,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논술을 따로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논술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변수와 행운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번의 실패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시와 학생부에 담긴 진짜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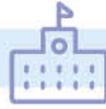
3학년 엄준혁



저는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적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수시를 포기하는 것은 핑계로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등급보다 훨씬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재수생·N수생의 존재, 시험 난이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수시 카드를 놓지 않는 편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부(생기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생기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내신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제 관심 분야인 AI 관련 진로 특강이나 활동들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채웠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특강, 탐구 보고서, 동아리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이 이 학과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해 왔는지 보여 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성적이 낮으니까 대중해야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성적이 조금 부족할수록, 생기부는 여러분이 준비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의 등급 숫자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대학은 여러분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잠재력을 함께 봅니다. 그러니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을 보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학년 1반

윤종은 선생님



자랑스러운 1반, 눈부신 18명의 우주를 만나 함께 나눌 수 있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힘들어도 각자의 꿈을 위해 끝까지 초심을 지키며 묵묵하게 공부하고 생활을 나누던 여러분들의 진심과 노력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목표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달렸던 이 시간들을 추억할 때마다, 자신감과 긍지를 되새기며,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위풍당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매순간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 노력하여 순간을 누릴 줄 아는 우리반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함께 꿈 꿀 수 있던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하, 박재범, 박환희, 백진현, 손준영, 양종현



엄준혁, 오제이, 윤이한, 이지상, 임민우, 임승준



임영진, 정유민, 조우솔, 차지호, 최원혁, 황준서

3학년 2반

김재근 선생님



세상 그 누구의 인생도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도를 만나 흔들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먼 길을 돌아야 하는 순간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의 목표를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채워나간다면, 삶은 분명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선물처럼 펼쳐 보일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 대입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디뎠던 우리반 학생 모두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선생님은 무척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 각자 조금씩 다른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혹은 그 목표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낼 훌륭한 성과의 단단한 기초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 학생들, 여러분이 떠나 머물게 될 그 모든 곳에서 항상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다해 응원합니다. 졸업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민서, 김도현, 김동하, 김예담, 김지운, 선무진



성연석, 신상진, 윤우성, 윤우진, 이상민, 정명완



정주원, 정지성, 조재원, 조현우, 최원준

3학년 3반

김희경 선생님



고3이라는 무게를 끝까지 견디며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 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환일을 떠나 또 다른 시작선 앞에 서게 되겠지요. 낯설고 두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남과 비교하며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결국 가장 멀리, 가장 단단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도전을 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작은 성취들이 여러분만의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졸업과 함께 여러분을 교실에서 떠나보내는 순간이 아쉽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던 여러분을 기억하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다시 비상하길 바랍니다.



강진서, 김민성, 김재원, 김준희, 김태현, 김하준



손성권, 양세민, 우지민, 이주원, 정승현



정우용, 정현우, 조민찬, 최준홍, 한지웅

3학년 4반

허성원 선생님



졸업을 앞둔 여러분은 이제 한 단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보여 준 성실함과 인내는 앞으로의 삶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줄 힘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충분히 잘 해 왔고,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존중하며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권호성, 김민재, 김용준, 김정욱, 김현우, 문가윤



백지민, 성유성, 안유민, 우석현, 윤태민, 정예준



정우진, 조승현, 최병찬, 하준현, 황준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학년 5반

허동명 선생님(체육중점과정)



1년 동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힘든 여정을 잘 견뎌준 14명의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 마다의 목표를 위한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쉬이 이루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표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표 앞에 좌절 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우리가 함께 보낸 힘든 순간, 즐거웠던 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우며, 함께 했던 시간들은 그 자체로 자신에게 충분히 의미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준영



김도원



김동준



나상규



장원준



정연우



김다을



김다음



박세운



박태민



윤태웅



이주왕



조영재



최찬이

3학년 6반

송영한 선생님



'인간의 꿈은 상어와 같아서 멈추면 질식해 죽는다.' 신촌 어느 굴다리에 휘갈겨져 있던 이 조막글이 힘들었던 어린 날의 저를 지탱했었습니다. 3년간 많은 꿈을 꾸었던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조막글 맞은 편에 새겨졌던 또 다른 조막글은 약 10년 후 3학년 6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생존이 목표면 표류지만 보물섬이 목표면 모험이다.' 졸업은 출항이며, 새로운 모험의 시작입니다. 넘어져도 딛고 일어서는 소년만화 주인공처럼 교문 밖 넓은 세상을 마음껏 모험하길 바랍니다.



김도균



김민준



김승원



김예찬



김재원



김현재



박현근



박서윤



심종현



양인규



유건우



윤창민



이시원



이주현



장재웅



장준혁



전대성



최율근

3학년 5반

이화평 선생님(직업과정)



올해에도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따라주고, 밝은 표정으로 만난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직업 과정 특성상 함께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지만 1년 동안 같이 보냈던 귀한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찾고 자기 계발을 위해 정진하는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앞으로의 길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졸업 후 각자 있는 위치가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만날 날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귀한 위인들이 되어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유찬

졸업을 축하합니다



3학년 7반

홍승강 선생님



진부한 이야기지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조금 크게, 멀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즐겁게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거예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강성진



김민호



김성남



남이준



마태훈



문승재



백호준



소희상



우재원



이성우



이태석



이현승



장재욱



주우진



주홍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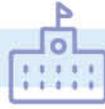
천세환



한준민



황지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학년 8반

이링구 선생님



올해 우리 8반은 참 자랑스러운 학급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쉽지 않은 목표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고, 잘 버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선생님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여러분을 성장시켰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많은 일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조차도 성장의 재료로 삼을 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여정에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별을 찾아 그 가치에 따른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전념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추억이 깃든 환일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멋진 미래를 기원하며,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규현 김민재 김윤슬 김인규 신성민 신은재



신찬이 이동하 이주원 이준 이진성 임성훈



이준서 임재원 정건우 조상연 최재영 최종건

3학년 9반

전수진 선생님



귀한 우리 9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희와 종례가 끝날 때마다 제가 늘 하던 말은 "항상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성적보다 먼저 여러분이 다치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담임교사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늘 같은 웃음을 오래 간직하며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 사랑받으며 빛날 우리 9반 화이팅!



권혁민 김주한 문경민 박선재 박찬영 송율희



오은성 원성현 이승훈 이재형 이지후 이현우



이호형 임기백 임기준 전지훈 최단 태문성



고3 수능 후 활동

지난 12월, 수능을 마친 3학년 선배님들은 그동안의 긴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며 세 차례의 외부 체험활동에 나섰다. 12월 3일에는 롯데월드를 방문해 놀이기구를 타고 퍼레이드를 관람하며, 시험 기간 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을 마음껏 풀었다. 12월 10일에는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빨래방」을 관람하며 무대 위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12월 19일에는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함께 보며 학급 친구들과 끝까지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세 번의 체험활동은 입시 경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 활동들이 선배님들에게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는 값진 기억으로 오래 남기를 바란다.

2학년 박정호 기자



롯데월드 체험



대학로 공연(3-3)



신나는 체험



뮤지컬 관람



영화 관람



롯데월드(3-9)



대학로 뮤지컬(3-1)



2025학년도 졸업생 특별상 수상자

 설립자상 박재범	 설립자상 박준영	 문화상 윤우성	 문화상 김하준	 경천상 김재하	 경천상 엄준혁	 학교장상 김승원	 학교장상 양민우	 중구 국회의원상 김동하	
 중구 국회의원상 윤이한	 마포구 국회의원상 김규현	 마포구 국회의원상 장원준	 마포구 국회의원상 김주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최원준	 중부교육장상 이준서	 중부교육장상 최찬이	 중구청장상 정예준	 중구청장상 백지민	
 마포구청장상 정현우	 사립중고등학교장 회장상 박찬영	 예수교 성결교총회장상 손순영	 기독교학교 연맹회장상 이진성	 기독교학교 연맹회장상 이성우	 자매부대장상 유건우	 자매부대장상 주우진	 학운위원장상 임민우	 학운위원장상 신무진	
 학운위원장상 황순하	 학운위원장상 김현재	 학부모회장상 남이준	 학부모회장상 전지훈						



학교소식

크리스마스 합창제

성탄절을 하루 앞둔 2025년 12월 24일(수), 우리 학교 대강당에서 크리스마스 합창제가 열렸다. 1~2학년들이 정성껏 준비한 크리스마스 합창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날 무대에서 학생들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주의 성령 임재하면>, <Feliz Navida>, <첫 눈> 등의 다양한 곡을 부르며 각 반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었다. 성탄절이 지닌 나눔과 화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학급 친구들과도 우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2학년 함주안 기자



성탄 예배 및 음악회

성탄절을 하루 앞둔 2025년 12월 24일(수), 본교 대강당에서는 성탄 예배가 열렸다. 이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말씀과 찬양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1부 성탄 예배는 김철우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찬송과 기도, 성경 봉독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으며, 서울제일침례교회 남정일 목사님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이 지닌 의미를 전했다.

이어진 2부 성탄 축하 음악회에서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전자현악 연주와 중창, 합창, 캐럴 메들리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예배의 감동을 음악으로 확장시켰다. 이번 성탄 예배와 음악회는 말씀과 음악이 어우러진 시간 속에서, 성탄이 지닌 기쁨과 평화의 의미를 학교 공동체가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2학년 방예우 기자



2월 주요 일정

2월

2월 4일(수) 제 73회 졸업식, 2월 5일(목) 종업식, 2월 10일(화) 신입생 배치고사
2월 11일(수) - 2월 12일(목) 신입생 OT, 2월 23일(월) - 2월 26일(목) 신입생 및 학부모 상담